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 '국평' 7억대

분양가 ㎡당 852만원…전월비 1.1%↑
전국 전용 84㎡ 7억1050만원 올려
공급물량은 전년 월평균 대비 적어

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3개월 연속 7억원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인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당 852만원으로 전월 843만원 대비 1.1% 상승했다.

1월 대비 지역별 변동폭을 살펴볼 경우 부산(3.1%↑)과 경기(3.0%↑), 제주(2.5%↑), 경북(2.1%↑)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반면 서울(2.3%↓)과 광주(0.5%↓), 충남(0.1%↓)은 소폭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분양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48.6%↑)과 대구(28.6%↑)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남(18.7%↑), 경기(17.9%↑), 충남(15.9%↑), 강원(13.9%↑)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31.8%↓)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월 전국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1050만원으로 전월(7억770만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7억1308만원) 이후 3개월 연속 평균 7억원대를 이어갔다. 반면 전국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3840만원으로 전월(5억3985만원) 대비 소폭 하락했다.

2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5342가구로 전월(3854가구) 대비 1488가구 증가했지만 지난해 월평균(9900여가구)과 비교할 경우 적은 물량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공급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217가구, 지방은 3125가구가 공급되며 7개월 만에 지방 공급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공급 편중이 뚜렷했다. 물량의 97%가 경기도에서 공급됐으며 서울은 61가구에 그쳤고 인천은 공급이 없었다.

지방 내부의 공급 구조 변화도 나타났다. 2월 광역시 공급은 222가구로 전체 지방 물량의 7.1%에 그치며 전월인 1월 광역시 비중 85.1%였던 것과 대조세를 이뤘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분양시장의 공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일부 대단지 공급 여부가 월별 지표를 크게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만큼 향후 분양 예정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승표 기자 sphong@viva100.com

동부건설, 738억원 규모 고양창릉 지하차도 수주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화랑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원에 총 연장 1414m, 폭 19m 규모의 왕복 4차로 화랑로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약 1.4km 구간을 입체화해 평면 교차로 중심의 도로 구조를 정비하고, 향후 주거단지 입주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738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지분 70%로 주관사를 맡는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8개월이다.

폭 19m 규모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는 광역 교통과 지역 생활 교통을 분리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 구간 완화와 통행 안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해당 지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을 비롯해 고양은평선, 서부선 등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 원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



강영주 GS건설 상무(사진 오른쪽)와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왼쪽). GS건설 제공

GS건설, 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

정보 정확성·공시 적시성 높인 점 호평

GS건설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한국거래소가 매년 상장법인의 공시 실적과 공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GS건설 공시책임자인 강영주 상무가 참석해 상을 받았다.

GS건설은 사내 공시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사전 공시 점검 체계 강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공시 적시성을 높여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주요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부서 간 실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조직 전반에 정착시킨 점도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해외업무연수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성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용산 1만호 공급 무리"

무리하게 공급 확대 시 경쟁력 악화
기존 6000가구 계획이 가장 현실적
본목적 범위 내에서 공급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공급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사업 지연과 주거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존 서울시가 제시한 6000가구 공급 계획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세운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급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주거 구성이 소형 평형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주거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합의된 공급 규모는 6000가구"라며 "서울시는 학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를 상한선으로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 없이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면 학교 신설과 각종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1인당 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주거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10년, 20년 이후를 준비하는 도시 성장 전략의 중심"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

호반그룹, 공모전 통해 스타트업 협력 확대

호반그룹은 '2026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 모집 분야는 스마트시티 산업과 연계된 기술 중심으로 △건설자동화(건설 로봇, 시공 자동화 등) △디지털 인프라(빌딩정보모델링, 디지털트윈 등) △에너지·ESG(탄소 저감, 자원 효율화 등)와 함께 △신사업(AI·로봇·에너지 융합기술 등) 분야로 구분된다.

공모전은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총 4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상기업에는 최대 1억4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사업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입주공간이 제공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수상기업과의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그룹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

